

원불교의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 삼학 수행을 중심으로 -

고 시 용(원국)

원광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우선 영성에 대한 원불교적 관점을 정립하고 원불교의 수행방법인 삼학을 중심으로 영성계발의 원리와 방법,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영성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불교의 영성은 '신령스러운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불교의 최초 입시교명 가운데 '영성소(靈性巢)'라는 표현은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막혀있는 마음, 무지몽매한 마음을 활짝 열어가야 하므로 인류의 정신개벽을 주도해 가는 집을 의미한다. 삼학(三學)은 일원상의 진리를 깨쳐서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수행방법으로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精神修養·事理研究·作業取捨)를 일컫는다.

원불교 수행 방법을 영성계발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불교 영성은 우주만유, 제불제성, 일체중생에게 두루 내재하는 법신불 일원상과 상통한다. 둘째, 영성계발을 통하여 정신개벽을 이루고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영성계발의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병행된다. 넷째, 영성계발의 방법으로서 원불교 삼학을 근간으로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일상수행의 요법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가 있는 영성계발 방법이며 정기·상시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술성요론을 통해서 활용이 쉬운 방법으로 상세히 제시되었다.

핵심 주제어 : 원불교, 수행, 삼학, 훈련, 영성, 영성계발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신령스러운 성품이나 성질을 의미하는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영성은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신적 또는 초월적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각자의 종교적 확신에 따른 어떤 생활양식을 형성한다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따라서 영성은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종교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교육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아울러 「종교 없는 영성은 가능하지만, 영성 없는 종교는 불가능하다.」²⁾는 말처럼 영성은 종교의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6년 4월 28일, 소태산대종사(少太山大宗師, 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의 깨달음으로 비롯한 원불교(圓佛敎)도 마찬가지이다.

원불교의 최초 임시교명은 ‘대명국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양생소(大明局靈性巢左右通達萬物建判養生所)’³⁾이다. 그 중에서 ‘영성소(靈性巢)’는 영성의 보금자리를 의미한다.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막혀있는 마음, 무지몽매한 마음을 활짝 열어가기 위한 인류의 정신개벽을 주도해 가는 집⁴⁾이라는 뜻이다.

원불교는 범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개교하였다.⁵⁾ 그에 따른 원불교의 수행방법으로써 ‘삼학’과 ‘팔조’를 꼽을 수 있다.

1) 이홍근譯, 『영성신학』(분도출판사, 1987), 13쪽.

2) Capra Fritjof, Steindl-Rast David, Matus Thomas, *Belonging to the universe*, 김재희,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범양사, 1997), 31쪽.

3) 1918년(원기3) 12월, 전남 영산군 백수읍 길룡리에 원불교 최초의 교당인 ‘구간도실(九間道室)’을 준공하고 「대명국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양생소」라는 간판을 처음 붙였다. ‘대명국(大明局)’은 미래세상의 전개를 예견한 것으로, 크게 밝고 크게 열린 하나의 세계, 열린 세계가 건설된다는 뜻이다. ‘좌우통달(左右通達)’이란 동서남북·상하좌우로 걸리고 막힐 것 없이 두루 두루 하나로 통하는 하나의 진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봉건사상과 현대사상, 불교사상과 기독교사상, 보수주의와 혁신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관념주의와 행동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차별주의와 평등주의 등 모든 사상과 모든 주의의 융합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만물건판양생소(萬物建判養生所)’란 우주만물을 상생 상화 상부상조의 선연(善緣)으로 새롭게 살려간다는 뜻이다. 장차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 한없이 발달하고 지혜가 크게 열릴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존중 등을 통한 근대화 작업으로 한없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아름답고 멋진 풍요한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정신개벽, 곧 도덕성의 회복이 뒷받침 되어야만 물질문명·기계문명·과학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세계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사상·이념이 서로 울을 터서 막힘없고 대립 투쟁 없이 사통오달로 융통 무애해야 하는 것이다. 장차 원불교가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종교로 발전해갈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일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로 만나게 될 것임을 예시한 것이다.

4) 손정윤 편저, 『원불교대계』(원불교출판사, 2000), 890~891쪽 참조.

삼학(三學)은 일원상의 진리를 깨쳐서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수행 방법으로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精神修養·事理研究·作業取捨)를 일컫는다. 아울러 팔조(八條)는 삼학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는 신·분·의·성(信·忿·疑·誠)과 삼학 수행을 방해하는 불신·탐욕·나·우(不信·貪慾·懶·愚)를 말한다. 따라서 원불교의 수행방법은 “신·분·의·성으로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태산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를 천명하였다. 아울러 삼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간도 떠날 수 없는 법」⁶⁾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정신개벽과 영성개발의 관점에서 삼학이 가장 필요한 법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개발에 대한 원불교적 방법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⁷⁾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영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함양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성개발에 대한 원불교의 수행방법을 삼학을 중심으로 구명(究明)해보고자 한다.

II. 원불교의 영성 개념

1. 영성에 대한 원불교적 관점

영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불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들에서 영성을 도외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초월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영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영성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여러 종교들에서 중요하면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용어라고 본다.

류성태는 원불교 영성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여자성으로서의 영성, 청정불성으로서의 영성, 공적영지로서의 영성, 정신개벽으로서의 영성, 범열충만으로서의 영성”⁸⁾으로 정리하였다. 물론 ‘영성’은 오늘날 원불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한 용례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성을 신령스러운 성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성품에 상응하는 다양한 표

5) 『정전』, 제1 총서권 제1장 개교의 동기(『원불교전서』所收) 참조.

6) 『대종경』 제2 교의품 18장.

7) 이정열 「영성 구성요인」, 류성태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 백준흠 「원불교 영성에 대한 교학적 고찰」(『영성과 마음공부』, 제24회 원불교사사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60~98쪽 참조.

8) 류성태,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영성과 마음공부』, 제24회 원불교사사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78~82쪽 참조.

현들이 배대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초의 임시교명 가운데 ‘영성소’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⁹⁾ 장차 건설하려는 회상의 포부와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원불교 성가』 113장의 부제목이 ‘영성의 노래’라는 것 이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구체적 용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성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저마다 값아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나 / 검은 구름 샅된 인정에 묻힌지 오래였네 / 오늘도 내일도 영성 불러일으키어 / 본래 영성 되기까지 닦고 또 키워보세

(2절) 개자보다 더 작은 한 알의 종자이나 / 니구류¹⁰⁾ 큰 나무도 그 종자로 이뤄졌네 / 너도나도 행어나 어렵다고 생각 말고 / 하루하루 쉬지 말고 계속 수행하여보세」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영성을 ‘신령스러운 성품’이라는 의미로서 성품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하였다고 본다. 예컨대 「일원은 … 제불·조사·범부·중생의 성품」¹¹⁾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성질로서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질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과 같이 참 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마는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적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¹²⁾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때의 편벽된 수행으로 짧은 시일에 큰 도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한갓 어리석은 욕심이요 역리(逆理)의 일이라, 그대들은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欲速心)에 끌리지 말고 위에 말한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바라는 바 목적을 어김없이 성취하기 바라노라.」¹³⁾는 소태산의 법문에 근거할 때 영성계발의 원칙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고 밝은 세상의 영성의 보금자리에서 모든 주의와 사상이 막힘없이 통하게 하며 천지만물을 새롭게 살려내는 곳’이라는 최초의 교명과 성가 113장의 가사를 통해서 나타난 원불교 영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영성은 정신개벽으로써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보금자리다.

② 영성은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 끌고루 간직하고 있다.

9) “대종사 옥녀봉 아래에 도실(道室)을 신축하시고 이를 첫 수위단 회집실로 삼으시었다. 대종사 도실 이름을 ‘대명국영성소좌우통달만물건판양생소(大明局靈性巢左右通達萬物建判養生所)’라 하시었다.”(『대종경선외록』 5. 사제제우장 13절)

10) 니구류(尼拘類)는 열대지역이 산지인 교목(喬木)의 일종으로서 무성한 가지와 잎은 열대의 폭염을 피하기에 좋은 그늘을 제공한다.

11) 『정전』 제2 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4절 일원상 서원문.

12) 『대종경』 제9 천도품 5장.

13) 『대종경』 제13 교단품 30장.

- ③ 영성은 오늘날 인간의 닳된 욕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가려졌다.
- ④ 영성은 계속 수행함으로써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이치를 따라서 개발된다.

2. 영성과 일원상 수행

원불교의 신앙대상이자 수행표본은 법신불 일원상이다. 따라서 영성과 법신불 일원상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본다. 소태산은 법신불 일원상을 「우주 만유의 본원(本源)·제불제성의 심인(心印)·일체중생의 본성(本性)」¹⁴⁾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제불제성이 증득한 진리가 바로 법신불 일원상이며, 제불제성의 마음이 바로 법신불 일원상에 계합된 경지이며, 일체중생의 본래 성품자리 또한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뜻이다.¹⁵⁾ 대상에 따라 본원·심인·본성으로 달리 표현된 성품은 곧 일원상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신불 일원상은 제불·조사·범부·중생에게 신령스러운 성품(영성)으로 품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경지를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를 정화신불이라고 밝혔는데 법신불이 그대로 화현한 상태를 영성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현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현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제불 제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곧 일체 중생을 이름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같이 값아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닳되고 어두울 때에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¹⁶⁾

백준흠은 원불교의 영성에 대하여 「원불교인이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해서 지녀야 할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등을 통칭하는 것」¹⁷⁾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원으로서 영성, 심인으로서 영성, 본성으로서 영성’¹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영성을 단순히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만유의 관계를 포함하면서 제불제성과 일체중생이라는 수행의 과제로 폭넓게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정전』에는 일원상의 수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4) 『정전』 제2 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의 진리.

15) 류병덕, 『원불교 진리관』(원불교반백년기념사업회 편, 『반백년 기념문총』, 원불교 정화사, 1971), 82쪽 참조.

16) 『법어』 제5 원리편 5장.

17) 백준흠 『원불교 영성에 대한 교학적 고찰』(『영성과 마음공부』, 제24회 원불교사사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90쪽.

18) 백준흠, 위의 논문, 92쪽 참조.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 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¹⁹⁾

위에서 주목할 바는 법신불 일원상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으로 설명한 점이다. 법신불 일원상, 마음을 영성과 연결지어볼 단초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법신불 일원상,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리고 영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²⁰⁾이라는 측면에서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할 때 마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되 그 근본은 성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원상과 같은 각자의 마음을 알자, 양성하자, 사용하자는 세 가지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바이다. 「일원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일까?」라는 박길진(崇山 朴吉眞, 1915-1985)의 물음에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발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 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 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私心)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두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회·로·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일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見性)이요, 일원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養性)이요, 일원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술성(率性)인 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계·정·혜(戒定慧) 삼학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혜며 견성이요, 취사는 계며 술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²¹⁾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원상 수행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9) 『정전』 제2 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3절 일원상의 수행.

20) 『법어』 제9 무본편 1장.

21) 『대종경』 제2 교의품 5장.

〈표 1〉 일원상 수행의 내용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 없이 알자 *일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견성(見性)-혜 *사리연구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	*일원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私心)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두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 *일원의 체성을 지키는 것-양성(養性)-정 *정신수양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	*일원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회·로·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 *일원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술성(率性)-계 *작업취사

훗날 박길진은 영성회복을 위한 종교적 수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들에게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성(靈性) 즉 ‘신령스러운 마음’이 있다. 이것이 욕심에 가려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苦)를 줄이고 괴로운 마음, 고해(苦海)에서 벗어나서 이 영성을 회복시키자. 종교의 문에 들어와서 성현(聖賢)의 말씀을 듣고 보면 자연히 영성이 회복되어 발휘된다. 이 아름다운 좋은 것을 세상에 발휘해서 생활해보고 죽어야 값진 인생이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적 수련을 하는 것이다.²²⁾」

영성에 직접 관련되는 원불교 용어로서 ‘성품(性品·性稟)’을 들 수 있다. 영성은 신령스러운 성품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원상의 신앙과 수행은 성품에서 비롯된 ‘마음’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원(本源), 심인(心印), 본성(本性), 자성(自性), 불성(佛性), 정신(精神), 심지(心地), 심전(心田), 심체(心體) 등을 성품과 연관되는 용어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영성의 개념에 상응하거나 대치(代置)되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컨대 소태산은 수행을 ‘심전계발(心田啓發)’로 설명하였다. 곡식을 재배하는 밭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수확이 불가능한 것처럼 마음 밭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 바탕을 심전(心田)이라고 한다. 아울러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행복을 갖추어 얻자는 것」을 심전계발이라 하였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것이나 경계를 따라 선악간 마음이 발하는 마음 밭을 계발하자는 것이다.

「본래에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발하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心田)이라 하고 묵은 밭을

22) 박길진, 「영성의 회복」(『원불교사상연구원 院報』 제12호, 1981년 5월 15일), 1쪽.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 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행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계발(啓發)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심전을 잘 계발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매고 또 매어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선악간에 마음 발하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하므로 행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심전 계발을 잘못 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도 내버려 두고 농작물이 나도 그대로 두어서 밭을 다 묵히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자행자지하는지라 당하는 것이 고뿐이요, 행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천만 죄복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심전 계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한히 하리요.」²³⁾

Ⅲ. 원불교의 수행 체계

1.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수행

지금까지 영성에 대한 원불교의 개념을 신령스러운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고 영성을 계발하기 위한 일원상 수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영성은 원불교의 종지(宗旨)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상통하며, 영성계발은 원불교가 지향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일원상의 신앙과 수행으로 밝혔다. 여기서는 수행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수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사람됨의 행실을 닦아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행실을 닦아나가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개벽의 방법으로서 원불교의 수행을 영성계발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먼저 원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원불교의 경전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정전』의 편차(編次)를 보면 총서편·교의편에 이어서 수행편이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상당한 비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행편의 내용은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영성계발을 위한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전』의 편차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23) 『대종경』 제3 수행품 59장.

〈표 2〉 『정전』의 편차

제1 총서편	제2 교의편	제3 수행편
제1장 개교의 동기 제2장 교법의 총설	제1장 일원상 제2장 사은 제3장 사요 제4장 삼학 제5장 팔조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제7장 사대강령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3장 염불법 제4장 좌선법 제5장 의두요목 제6장 일기법 제7장 무시선법 제8장 참회문 제9장 심고와 기도 제10장 불공하는 법 제11장 계문 제12장 술성요론 제13장 최초범어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제16장 영육쌍전법 제17장 법위등급

소태산은 정신개벽을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춘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²⁴⁾ 자신의 구도과정 및 깨달음의 독창성에 바탕하여 제시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수행문(修行門)’²⁵⁾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삼학·팔조·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을 위주로 하는 원불교 수행체계는 시대화·생활화·대중화에 초점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행법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의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개인차원의 영성 회복의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은(四恩)·사요(四要)·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像 事事佛供)을 축으로 하는 원불교 신앙체계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차원의 영성회복과 실천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원상의 수행은 『일원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²⁶⁾라고 한 바와 같이 일원상 신앙과 함께 동시에 병행되는 것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24) 김낙필, 『한국 근대종교의 삼교융합과 생명·영성』(『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39집, 원불교사상연구원·한국원불교학회), 2008, 44쪽.

25) 『원불교 교전』 교리도 所收.

26) 『정전』 제2 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3절 일원상의 수행.

2. 삼학 병진

원불교 수행방법은 정신수양 · 사리연구 · 작업취사의 삼학을 병진하는 것이다. 삼학의 각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렵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렵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²⁷⁾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 · 비 · 이 · 해(是非利害)를 이름이요, 이(理)라 함은 곧 천조(天造)의 대소 유무(大小有無)를 이름이니, 대(大)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小)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춘 · 하 · 추 · 동 사시 순환과, 풍 · 운 · 우 · 로 · 상 · 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 · 로 · 병 · 사와 홍 · 망 · 성 · 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²⁸⁾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 · 이 · 비 · 설 · 신 · 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²⁹⁾

삼학 수행의 특징은 병진(竝進)에서 찾을 수 있다. 삼학 공부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아울러 닦아나가는 것이다. 소태산은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삼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중략)… 이 삼대력(三大力)으로써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³⁰⁾이며 「삼학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³¹⁾이라고 밝힘으로써 삼학 병진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삼학 수행을 오래오래 계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 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自主)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修養力)을 얻을 것이니라.³²⁾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걸림 없이 아는

27)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1.정신수양의 요지.

28)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2절 사리연구 1.사리연구의 요지.

29)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3절 작업취사 1.작업취사의 요지.

30) 『대종경』 제1 서품 19장.

31) 『대종경』 제2 교의품 21장.

32)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3.정신수양의 결과.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研究力)을 얻을 것이니라.³³⁾

우리가 작업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取捨力)을 얻을 것이니라.³⁴⁾

삼학에 대하여 소태산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간도 떠날 수 없는 법」³⁵⁾이라고 강조하였다. 삼학병진이야말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영성을 계발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일원상을 체하는 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일원상과 합일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일원상 체하는 법

일원상은 어떠한 법으로 체하는 것인가. 이것은 곧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 반조하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고 분별 주착이 업는 오직 두렷한 참 성품이건마는 六根이(육근은 眼耳鼻舌身意) 六識(六識은 육근이 각각 分別力이 있으므로 六識이라 함)으로 화하고 육식이 六塵(육진은 色聲香味觸法)을 응하여 그 가운데에서 자연 무수한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 진성을 버리게 되는 것인 바 공부인은 먼저 각자에게 그러한 성품이 근본적으로 품부해 있음을 각오하여 이것으로써 수양의 최상 표본을 삼고 항상 그 육근을 조복하며 망심을 제멸하여 다시 이 일원의 진경이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것이니, 우리가 매일 염불을 하고 좌선을 하며 기타 모든 시간에도 오직 전일을 연마하는 것이 이에 대한 實行的 과정이 아님니까. 그러한 중에 이 공부를 긴밀히 하기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일원상을(妄想업는 곳) 깊이 인상하여 잠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혹 어느 기회에 탐심이 동하거든 즉시 발견하여 “아, 내가 일원상을 망각하였구나.”하고 급히 그 마음 돌리기에 힘쓰며 또, 어느 기회에 진심이 동하거나 치심이 동하거나 기타 무슨 망상이 동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힘써서 동정 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 대중을(一圓相에 反照하는 대중)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일원상 체하는 법이니 이 법을 오래 계속하면 필경 날(個)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진망이 구공하고 몰아 동일하여 능히 생사를 초월하고 무위(無爲는 한다는 相이 없는 것)에 안주할지니 이런 자는 곧 일원상에 회복되어 여래의 법신을 여실히 획득(確得)하였다고 할 것입니다.³⁶⁾

33)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2절 사리연구 3.사리연구의 결과.

34)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3절 작업취사 3.작업취사의 결과.

35) 『대종경』 제2 교의품 18장.

36) 박정훈 편저, 『한울안 한이치에』(원불교출판사, 1995), 제2편 평상심 5.일원상에 대하여.

IV. 원불교의 영성계발 방법

1. 일상수행의 요법

이제 원불교 삼학 수행을 통한 영성계발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영성계발을 위한 원불교적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류성태는 「인성교육, 명상과 좌선, 신앙체험, 마음공부, 풍류」로 영성함양의 방법을 설정하였다.³⁷⁾

논자는 영성계발을 위한 원불교적인 방법은 삼학 수행을 근간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정전』 가운데 수행편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태산은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근기와 경우를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마음 기틀을 계발하는 공부」³⁸⁾가 원불교 교법의 특징이라고 밝혔는데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목할 방법은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원불교 교리를 실천공행하여 나날이 중생의 탈을 벗고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수행법이다. 원불교 교리의 강령을 아홉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서 1조·2조·3조가 삼학 수행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심지(心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自性)의 정(定)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慧)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戒)를 세우자.³⁹⁾

오늘날에는 종교적 영성과 직접 연결된 기도나 명상, 좌선뿐만 아니라 자연, 사회, 그리고 각 인간의 자아와 연계된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영성계발의 내용도 전통적인 명상 훈련의 차원을 넘어선 총체적인 삶의 현장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여 경계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온전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밝힌 것이다.

37) 류성태,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 『영성과 마음공부』(제24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82~85쪽 참조.

38) 『대종경』 제2 교의품 24장 참조.

39) 『정전』 제3 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2.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삼학이 원불교 수행방법의 원론이라면 훈련은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하여 실질적인 힘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삼학을 중심으로 한 훈련으로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시하였다. 정기훈련이란 공부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삼학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인 훈련 과목에 의거하여 철저히 훈련하는 것이며, 상시훈련은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훈련법이다.

정기훈련 과목 가운데 염불(念佛)·좌선(坐禪)은 정신수양 훈련과목이고, 경전(經典)·강연(講演)·회화(會話)·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定期日記)는 사리연구 훈련과목이며, 상시일기(常時日記)·주의(注意)·조행(操行)은 작업취사 훈련과목에 해당한다.⁴⁰⁾ 정기훈련법은 정(靜)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된다.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나뉘어 실행하는 상시훈련법은 동(動)할 때 공부로서 작업취사를 주체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된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應用)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 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0)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염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呪文)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업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丹田)에 주(住)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적무별(圓寂無別)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고,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格)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혜두(慧頭)를 단련시키기 위함이고,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혜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고, 의두는 대소 유무의 이치와 시비 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話頭)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고,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고,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 작용의 처리건과 감각(感覺) 감상(感想)을 기재시킴이고,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기재시킴이고, 주의는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고,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解悟)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例會)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⁴¹⁾

삼학병진과 마찬가지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병진됨으로써 큰 효과가 나타난다.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공부인으로 하여금 일본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⁴²⁾ 아울러 일원상을 이용하는 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일원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활용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일원상 이용하는 법

일원상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곧 일원상을 잘 체득하는 공부로서 모든 경계를 응용할 때에 또한 일원적 실행을 하자는 것이니 일원적 실행이라 함은 즉 회로애락에도 끌리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과하게도 말고 불급하게도 말아서 천만사를 오직 공변되고 오직 바르고 오직 가운데 하고 오직 떳떳하게 처리함을 이름이 이것이 곧 성품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소작이요 진리에서 활용되는 정의의 행사라 능히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하는 대도 정체가 되나니 공부인이 만약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면 일체 시중에 항상 성성불매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무위의 취사를 하여야 할지니 우리가 매일 일기를 하고 유무נם을 대조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과정인 되는 바, 그 일부의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응용할 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응용한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는가를 조사한 것이니 그와 같은 주밀한 공

41)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42)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참조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부로써 시종이 여일하면 자연중 모든 일이 점점 골라 맞아서 사사 처처에 항상 일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필경 만선이 겸비하는 성공을 성취할 것입니다.⁴³⁾

3. 술성요론

영성계발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술성요론(率性要論)을 빼놓을 수 없다. 성품을 일상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는 조항을 16가지로 밝힌 것이다. 소태산은 「술성요론을 실천궁행하여 삼대력 얻어 나가는 대중을 잡는 것이 곧 종교심이니라.」⁴⁴⁾고 밝혔다. 술성요론을 실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삼학 수행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요 종교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2.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3. 사생(四生)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4.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5. 주색 낭유(酒色浪遊)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6. 한 편에 착(着)하지 아니할 것이요,
7.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8. 일일 시시(日日時時)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9.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10.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건문하여 자기의 그림은 깨칠지언정 그 그림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11.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건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12. 정당한 일이거나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13. 정당한 일이거나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나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15.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16. 어떠한 원을 발하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⁴⁵⁾

술성요론은 성품을 거느리는 요긴한 법이다. 안으로 심성을 잘 발현시키고 조절해서 수행정진심을 일으켜 원만한 법도행을 하게 한다. 밖으로는 유정 무정의 각각의 성질에 따라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임의자재하게 활용하여 만사에 걸림이 없이 하는 것이다.⁴⁶⁾

43) 박정훈 편저, 『한울안 한이치에』(원불교출판사, 1995), 제2편 평상심 5.일원상에 대하여.

44) 이공전, 『대종경선외록』(원불교출판사, 1985), 17.선원수훈장 6절.

45) 『정전』 제3 수행편 제12장 술성요론.

46) 한정석, 『원불교 정전 해의』(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534쪽.

V. 결 론

영성을 ‘신령스러운 성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질개벽으로 인하여 오늘날 풍요와 편리를 누리게 된 인류에게 영성계발이 요청되고 있다. 나아가 영성계발을 바꾸어 말하면 정신개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개벽의 두 축으로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시한 소태산의 가르침 가운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수행의 다른 표현이다.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의 삼학 병진 수행으로 특징지어지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집약된다. 아울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술성요론 등으로 체계화되고 더욱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원불교 수행 방법을 영성계발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불교 영성은 우주만유, 제불제성, 일체중생에게 두루 내재하는 법신불 일원상과 상통한다. 둘째, 영성계발을 통하여 정신개벽을 이루고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영성계발의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병행된다. 넷째, 영성계발의 방법으로서 원불교 삼학을 근간으로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일상수행의 요법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가 있는 영성계발 방법이며 정기·상시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술성요론을 통해서 활용이 쉬운 방법으로 상세히 제시되었다.

오늘날 여러 종교들의 수행방법은 서로 공개되고 공유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영성계발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는 별도로 각자 자기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가르침이든 영성의 세계는 크게 열려있고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양한 종교들의 영성훈련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중요시되어온 명상은 인도 철학의 요가(yoga)와 불교의 선(禪), 그리고 가톨릭의 묵상(meditation)과 관상(contemplation) 등으로 공유되었다. 원불교의 수행방법 역시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러므로 관심 있는 수행인들이 많이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본교가 영성계발에 도움이 되는 원불교 수행방법을 널리 바르게 알리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정전류〉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단행본〉

Capra Fritjof, Steindl-Rast David, Matus Thomas, *Belonging to the universe*, 김재희, 『신과 학과 영성의 시대』, 범양사, 1997.

류성태, 「성직과 원불교학」, 원불교출판사, 1997.

박용덕,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원불교출판사, 2003.

박정훈 편저, 『한울안 한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95.

손정윤 편저, 『원불교대계』, 원불교출판사, 2000.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 수행론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 원불교출판사, 1985.

이흥근譯,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1987.

한기두, 『원불교 정전 연구-수행편 I』,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7.

한영란, 『교사와 영성교육』, 내일을 여는 책, 2004.

한정석, 『원불교 정전 해의』, 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논문류〉

김낙필, 「한국 근대종교의 삼교융합과 생명·영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9집, 원불교 사상연구원·한국원불교학회, 2008. 8.

류병덕, 「원불교 진리관」, 『반백년 기념문충』, 원불교 정화사, 1971.

류성태,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 『영성과 마음공부』, 제24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백준흠, 「원불교 영성에 대한 교학적 고찰」, 『영성과 마음공부』, 제24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소기석, 「원불교의 사은윤리에 나타난 생태학적 영성에 관한 연구」, 『종교학보』 창간호, 2006.

이건열, 「원불교 수행의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경열 「영성 구성요인」, 『영성과 마음공부』, 제24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2005. 1. 27.

한지성, 「한국의 종교와 영성」, 월간『원광』 제265호, 1996.

〈기타〉

박길진, 「영성의 회복」, 『원불교사상연구원 院報』 제12호, 1981년 5월 15일.

원고접수: 2008년 10월 24일 1차심사: 11월 21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 소개: 고시용(원국)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② 관심영역: 원불교교육학, 원불교경전해석학, 한국신종교
 - ③ 주요논저: 『클릭 원불교』(공저2), 『종교(원불교)』(공저)
 - ④ E-mail: kwgksy@hanmail.net
-

Abstract

The Way of *Won*-Buddhism Practice and Development of Spirituality -Based on Practice of the Three Fold Study-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Preferentially, this thesis form a *Won*-Buddhism point of view about spirituality and has a aim to enlarge the boundaries of spiritual education by investigate the principles, methods and characteristic of spiritual development based on tree fold study how to practice of *Won*-Buddhism. It can be consider that the spirituality of *Won*-Buddhism means 'the spiritualized nature'. The expression named 'spiritual house' which the first temporary religion name of *Won*-Buddhism means the house as leading a great opening of spirit of the human race. Because it is first widely open the human mind which was blocked and benighted for establish the one human race and one world. The three fold study means Cultivating the Spirit, Inquiry into Human Affairs and Universal Principles and Choice in Action as the way of practice with attain the awesome power of *Il-Won* and be unified the substance and nature of *Il-Won* through awake the Truth of *Il-Won-Sang*.

It can be summarize and arrange as follows that the way of *Won*-Buddhism practice is considered result from the view of spiritual development. First of all, *Won*-Buddhism spirituality is communicate with *Il-Won-Sang*, the Dharmākaya Buddha, which was widely inherent to the original source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the mind-seal of all the buddhas and sages and the original nature of all sentient beings. Second, through the spiritual development, it can be realize a great opening of spirit and lead all sentient beings to a vast and immeasurable paradise. Third, the way of spiritual development was run parallel with faith in a religion based on truth and training in morality based on facts. Fourth, as a way of spiritual development, it was represented systematic methods of practice on the basis of three fold study of *Won*-Buddhism. Fifth, the essential Dharmas of daily practice are way of spiritual development having relation with all realm of daily life and it represents the specific Dharmas of training divide into fixed-term and daily. In addition, it was represents in detail from easy way to practical use through the essential discourse on commanding the nature.

Key words : *Won*-Buddhism, practice, three fold study, training, spirituality, spiritual development